마야투어
MAYA TOUR
해외자유여행
☎ 02)722-9001
신상품의 동물보 불쾌지를 밝혀는 상저순에!

佛教新聞

bulgyo.com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7년 7월 27일(2013년 / 당기 43441년 불력 6월20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32호 토

# SBS-Y 편향 왜곡보도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 조계종 즉각 '방송배포 금지거처분' 신청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가 관광목 시각으로 편집 제작된 것과 관련, 불교계가 SBS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송 이후 우선 조계종은 해당방송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불교TV에서는 활영당한 종단 관계자는 연은종교계위에 제소한다. 또 표출나 전 주지를 다른 스님 사진으로 방송한 것과 관련, 해당 스님은 초상권 침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23일 SBS에 사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중앙신도회도 입장문을 통해 해곡편파보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계종 대변인 주경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궁금한 이야기 Y' 17회의 '자장암을 찾아온 불청객, 그들은 왜 주지를 내쫓았나?' 방송 직후인 20일 'SBS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방송에 대한 입장' 을 통해 밝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주경스님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불교와 조계종단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자격도 없는 예비승려의 신분이면서 주지의 자리에 연연하는 자의 시기에 전혀오도 의존해 구성된 방송을 보며 제작자와 취재진, 작가 등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권한을 구실삼아 근거 없는 소문을 전파가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면 비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종단은 여도적인 비난과 조롱, 악의적이고 조작된 편집을 통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불교계, 난치병어린이 지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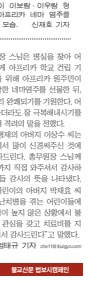
### 총무원장 자승스님 브론코 병원 방문 치료비 후원하자 보호자 거듭 인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화성 브론코기독병원을 찾아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문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보살님 · 이우형 형제여게 이르르키 네마 말주를 선물하는 모습. 신재홍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문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브론코기념병원을 찾아 이보람 · 이우형 형제와 백민수 어린이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달했다. 또 브론코기념병원에도 지원금을 전달해 난치병이던 어들이 쾌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자금나눔기금은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13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명 돕기캠페인' 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으로, 1억3000만 원은 병원입장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추천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3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특별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각각 여주군양평어린복지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추천된 어린이들이다.

허리나 팔, 다리 등 근력이 저하되거나 위축되는 불치성 질병인 근디스트로피를 앓고 있는 이보람·이우형 형제는 선천적으로 희귀질환 가지고 태어났다. 이 군 형제의 어머니는 생활고로 가출해 연락이 두절돼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천성 대사이상을 앓고 있는 박민수 어린이는 유아들에 포함된 단백질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화성 브론코기념병원을 찾아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문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보살님 · 이우형 형제여게 이르르키 네마 말주를 선물하는 모습. 신재홍 기자

총무원장 스님은 병실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아프리카 한교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해 아프리카 원주민이 직접 제작한 네마넌주를 선물한 뒤, "쾌두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극복해내시기를 바란다"며 용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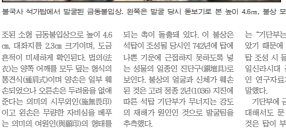
이 군 형제의 아버지 이상수 씨는 "불교계에서 많이 신경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먼 곳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박민수 어린이의 아버지 박재효 씨도 "희귀난치병을 겪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임태규 기자 chr119@bulgyo.com

## 석가탑서 8세기 금동불 발굴

기단부서 4.6cm 크기

"통일신라 귀중한 자료"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왼쪽은 발굴 당시 돈보기로 본 높이 4.6cm, 불상 모습.

1271년 동안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던 불국사 석가탑 기단부에서 금동불상이 발굴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시는 지난 19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 기단 속에서 금동입상(金銅立像) 1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지난 17일 불국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면석 해체를 위해서 기단 내부 적심석을 수습하던 중 발굴됐다. 위치는 북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서탑 중심부 쪽으로 48cm, 동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서탑 중심부 쪽으로 100cm 지점이다.

발굴된 불상은 통주불형상으로 주조된 소형 금동불입상으로 높이 4.6cm, 대좌지름 2.3cm 크기이며, 도금흔적이 미세하게 확인된다. 면의(袒衣)는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식(通肩式)이며 양손은 앞부 채손되었으나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의 시무외인(施無畏印)이고 왼손은 무량한 자비심을 베푸는 의미의 여원인(與願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처님의 얼굴 여시 체존재 앞아보기 이래우나 동그란 얼굴에 육계(肉髻) 위에 뒤어나온 부분)가 우독하게 표현되어 있다. 등 뒤에는 광배(光背,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를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이 흔들돼 있다. 이 불상은 석탑이 조성될 당시인 742년에 탑에 나른 기운에 근접하지 못해도첫 는 상태로 있동안 외부구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얼굴과 신체가 훼손된 것은 고려 정종 것년(1039) 지진에 따른 석탑 기단부가 무너지는 강도의 재해가 원인인 것으로 발굴팀을 추측했다.

1966년 발견된 '불국사 서석탑중수명지'에 따르면, 석탑의 보수는 곧 시행되지 않았고, 2년 후인 1038년 중수했다고 전해지만 기단부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금동불에 대해 동국대 문헌과 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기단부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금동불은 딥 조성 시 들어갔을 것"이라며 "통일신라시대 금동불 양식의 기준적인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단부에 금동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불상을 넣는 것은 탑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 불상봉안을 사리봉안과 같은 의미로 봤던 것을 것"이라며 "불연 주체도 신도들이 넣는 경우도 있으나 탑이 영원하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나 공덕을 가늠장이 크다"고 보았다.

이태희 기자 styee@bulgyo.com

## "2000만 불자·종단명예 훼손 엄중 대응"

### 중앙신도회, 입장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도 공기소송을 방기한 채 불교를 편파보고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고 규탄했다.

중앙신도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BS는 연론의 공기를 방기한 채 편향되어 없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함으로써 2000만 불자와 조계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계종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기획 제작된 것이 아니고 뭔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스봉지와 조계종에 대한 정중한 사과 스제작진에 대한 엄중 문책 스불교 편파 왜곡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SBS가 공기있서 제작다를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SBS 자장 공식사과·책임자 문책 요구

### 조계사, 항의 방문

한편 조계사는 23일 서울 SBS 목동 사옥을 직접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했다. 행정국장 성진스님, 기획국장 명조스님, 이세종 종무실장 등 3명은 김태성 SBS 제작본부장 등 면나 항의와 문책과 사과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문명위원장 성진스님은 "제작진이 일방의 의견만을 구체적인 증거없이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구성한다로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며 "시청률 제고만을 위해 종미 위주로 방송을 기획, 편집한 해당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과 동시에 사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어현경 박민혁 기자

## 社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 이제중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구독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꼽이 닿지 못하는 여러 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계시는 법보시가 드리워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이신 단이지만 포교사 한일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현장이 열악한 포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이 닿았은 현장에서 불교 뉴들의 자비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시공이 중 으한는 법보시이 비 지기 자신과 취대를 위한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취는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 이 닿 수 있는 음가의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 법보시 캠페인 문 (02) 730-4488
▶ 문 자 전 송 (010-4157-4406)